

정답 및 채점기준표

시험 회차 : 제35회 시험 수준 : TOPIKII

영역 : 쓰기

문항번호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서답형)	배점
51	① 그동안 사용했던 제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②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전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52	① 퍼즐 조각이 제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② 비로소 사회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10
53	30대와 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30대의 경우 공연장 문화센터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 약국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60대는 병원 약국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장 문화센터가 23%로 조사되었다. 공원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30대와 60대가 2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나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0
54	<p>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굴지의 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p> <p>물론 행복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은 요구된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복의 크기가 경제력과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주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요즈음, ‘먹고 살 걱정’에서 놓여난 다음 잉여의 경제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배고픈 예술가가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배만 부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결국 행복이란 안락한 생활과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p> <p>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 행복한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지 그리고 무슨 일에서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잘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를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쓸 것인가에 대해 가끔씩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여유를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p>	50